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브리프
BRIEF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Vol. 34
2024. 0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T: 055-713-7074 F: 055-713-7093 www.gnwff.or.kr

이정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경남 근대화의 상징, 한일합섬과 한일여고에 대한 기록[1)]

01. 경남여성 생애구술사 추진경과
02. 한일합섬과 한일여고의 역사
03. 생애구술사에 담긴 의미
04. 남은 과제들

▪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21년 『경남 여성사 발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발간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경남여성 생애구술사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경남 근대화의 상징으로 지칭되는 한일합섬(한일여고)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꿈꾸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애구술사 연구를 진행함

▪ 2023년 한일합섬에 대한 기억과 기록 수집 공모전과 함께 진행된 경남여성 생애구술사 연구에서는 한일여고 졸업생 8명과 교사 1명 등 9명의 생애구술사를 담았으며, 이 글에서는 연구가 추진된 배경과 함께 9명의 생애구술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함

▪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전국 최초의 산업체 학교로 전국에서 많은 소녀가 찾아왔지만 그 소녀들의 경험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여전히 떳떳하게 꺼내놓을 수 없는 역사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이번 생애구술사 연구는 경남 근대화의 상징인 한일합섬(한일여고)을 거쳐 간 그 많던 '여공'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음

01. 경남여성 생애구술사 추진경과

▪ 경남여성사 연구 추진경과

- 2021년 12월 『경남 여성사 발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발간
- 2022년 3~5월 <여성 생애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진행 (공동필진 7명 선발)
- 2022년 7월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년 12월 『경남여성 생애구술사 01: 여성의 삶으로부터, 전통을 잇다』 발간
- 2023년 12월 『경남여성 생애구술사 02: 한일합섬, 일하고 공부하고 꿈꾸다』 발간
- 2024년 2~4월 <여성 생애구술사 기록전문가 심화과정> 진행 (2기 공동필진 7명 선발)
- 2024년 『경남여성 생애구술사 03: 어시장 상인, "내 삶의 터전은 바다요"』 연구 진행중



그림1 『경남여성 생애구술사 02: 한일합섬, 일하고 공부하고 꿈꾸다』 표지

1) 본 보고서는 2023년 12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한 『경남여성 생애구술사 02: 한일합섬, 일하고 공부하고 꿈꾸다』 중 서문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재구성함

▪ 2023 경남여성 생애구술사 연구 추진경과

· 2022년 5월 생애구술사 편찬위원회 개최

- 경남 근대화의 상징인 '한일합섬'[2]이 경남여성 생애구술사의 첫 번째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짐

· 기억과 기록 수집 공모전과 아카이빙 전시회

- <경남여성 아카이빙: 한일합섬 기억과 기록 수집 공모전> : 5.12~ 6.30. 실시, 8편의 수기와 157건의 기록물 제출
- <경남여성 아카이빙: 한일합섬, 일하고 공부하고 꿈꾸다> 전시회 : 11.15~11.26 개최

- 토크콘서트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11.15. 개최



그림2 <경남여성 아카이빙> 포스터

▪ 2023 경남여성 생애구술사 연구개요

· 생애구술 참여자 : 한일여고 졸업생 8명, 한일여고 교사 1명 등 9명



박만자 (1회 졸업생)	김수옥 (1회 졸업생)	김영수 (2회 졸업생)	안경매 (3회 졸업생)	천은미 (4회 졸업생)	박경순 (5회 졸업생)	지현영 (6회 졸업생)	석옥선 (7회 졸업생)	황경희 (교사)

그림3 생애구술 참여자 삽화

· 연구진 및 공동필진 8명과 생애구술 참여자가 매칭해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 진행(최소 2회, 1회당 2시간씩)하였고, 원고 확인 및 감수 작업 별도 진행함

표1 인터뷰 질문지

한일여고 졸업생	한일여고 교사
한일합섬에 오게 된 과정	한일여고에 부임하기까지의 과정
한일합섬에서 일하다	한일여고 학생들과의 관계
한일여고에서 공부하다	한일여고의 변천사, 학생들의 변화
한일여고, 한일합섬이 있던 당시 마산의 풍경	한일여고, 한일합섬이 있던 당시 마산의 풍경
한일합섬에서 꿈꾸다	선생님으로서의 삶

2) 한일합섬은 1964년 한일합성섬유공업으로 시작해서 1993년 한일합섬으로 상호를 변경함. 한일여고는 1974년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로 시작해서 1989년 한일여자고등학교, 1992년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 2015년 한일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한일합섬'과 '한일여고'로 명칭을 통일함

02. 한일합섬과 한일여고의 역사

▪ 한일합섬의 설립과 성장, 그리고 쇠락

- 1964년 한일합성섬유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1967년 부산에서 마산 양덕동으로 본사를 이전함
- 당시 수출 장려 정책의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한일합섬은 1973년 국내 최초로 수출 1억 불 탑을 수상하였으며, 1970년 설치된 마산수출자유지역과 함께 마산을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전국 7대 도시"로 만든 대표적 향토기업임
- 1980년대 후반 섬유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한일합섬도 사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1997년 IMF 여파로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법정관리를 받게 됨
- 그리고 공장터에 남아 있던 굴뚝마저 2006년에 철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짐

▪ 국내 최초의 산업체 고등학교인 한일여고

- 산업체 학교가 처음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을 방문하여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부가 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한 게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짐
- 1974년 1월 5일 학교법인 한효학원(초대 김한수 이사장)이 설립되었고, 2월 28일 '한일여자실업학교' 설립을 인가받고, 3월 30일 28학급 1,680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진행함
- 1974년 3학년 69학급으로 인가받았다가, 1977년 90학급, 1978년 120학급으로 점차 확대되어서 학생 수만 7,200명에 달함. 1979년 김해한일여고(24학급), 1980년 수원한일여고(24학급)와 대구한일여고(24학급) 개교로 1개 본교, 3개 분교 체계를 갖춤
- 한일여고는 섬유산업 쇠퇴라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1992년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일여고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한일여고는 1974년 설립된 건물이 있는 위치에서 현재도 31학급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표2 한일합섬·한일여고 연혁

연도	한일합섬	한일여고
1960년대	1964년 한일합성섬유공업 설립 1967년 부산→마산 양덕동 본사 이전 1969년 김해공장 설립	
1970년대	1973년 국내 최초 수출 1억불탑 수상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방문 1975년 대구/수원공장 설립	1974년 학교법인 한효학원 인가 한일여자실업학교 인가(69학급) 및 개교식 한일여고 교사 완공 및 입주(교실 60개) 1978년 학칙 변경으로 120학급까지 규모 확대 1979년 김해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 개교(방적과 24학급)
1980년대		1980년 수원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 개교(방적과 24학급) 대구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 개교(방적과 24학급) 1980~1981년 팔도잔디 조성 1989년 교명 변경(한일여자고등학교)
1990년대	1997년 부도 처리 및 법정관리	1992년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 교명 및 학칙 변경 1998년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
2000년대	2006년 한일합섬 공장 굴뚝 철거 2009년 메트로시티 1차 준공	
2010년대 이후	2015년 메트로시티 2차 준공	2015년 한일여자고등학교 교명 변경 및 학칙 변경(35학급) 2024년 개교 50주년 기념식 및 역사관 개관

3) <한일합섬 사보 제27호>(1974.4.10. 발행).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은 그보다 한참 후인 1976년 12월 31일 <교육법>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고등학교"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임

03.한일여고 졸업생 생애구술사에 담긴 의미

▪ 1970년대 경험에 주목한 이유

· 한일여고는 1974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1992년 한일전산여고로 교명을 변경하기까지, 즉 1회 졸업생(1977년 졸업)부터 19회 졸업생(1994년 졸업)까지 산업체 학교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 그중 이번 생애구술사 연구 참여자는 1회부터 7회 졸업생까지 집중돼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체 학교가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된, 오빠나 남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어린 나이에 학교 대신에 생산 현장에 뛰어든 여성 즉, '여공' [4] 담론 자체가 197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종합대학이 늘어나고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아져서 여성에게도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되었고,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에서는 1981년 졸업정원제를 실시해 대학 정원을 확대하였고,[5] 이로 인해 '학교를 가기 위해 공장에서 일한다'는 배움과 교육에 대한 열의가 1970년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해짐

· 또한 1970년대만 해도 일찍 생산 현장에 뛰어든 '여공'의 경험은 비교적 흔한 "보편적" 경험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보편적" 경험이 아니라 특수한 경험이 되면서 산업체 학교 졸업생들은 본인의 경험을 앞에 나서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음

-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산업체학교를 졸업한 8명과 교사 1명의 삶을 생애구술사 연구를 통해 기록함

▪ 전국적인 사원 모집과 신체검사

· 당시 한일합섬으로 전국 팔도에서 10대 후반의 어린 소녀들이 모여들었고, 회사 측에서도 사원 모집을 위해 전국으로 홍보하러 다님

- 회사 입장에서는 섬유산업 호황기에 일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여성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이 좌절된 상황에서 돈도 벌면서 공부도 더 이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으로 작용함

· 전국을 순회하면서 면접을 볼 때 신체검사도 필수사항이었는데, 신체검사의 조건이 키는 155~160cm 이상, 몸무게는 45~50kg 이상이었음

-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누구는 호주머니에 돌멩이를 넣었고, 누구는 발끝을 들어 올려서 키를 맞추었다는 얘기가 동창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회자됨

- 당시 신체검사의 기준이 정해져 있던 이유는 공장에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격이나 체력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음



여사원 모집안내

1. 모집인원 : ○○○ 명
2. 응시자격 : ① 중학교 졸업자
   ② 연령 만15세~19세인자
3.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통
   (사진3매 첨부)
   ② 졸업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전형당일 졸업앨범 지참
4. 접수기간 : 1976. 9. 14 15 : 00한
5. 접 수 처 : 본사(마산) 총무부 노무과
6. 전형일자 : 1976. 9. 15 08 : 00
7. 전형방법 : 신체검사 및 면접
8. 특 전 : ① 1977년도 한일여자실업학교 응시자격 부여
   ② 기숙사, 중식, 통근버스 승차 무료제공

그림4 <한일합섬 사보> 제54호(1976.08.31.)

4) '여공'은 '공순이'처럼 당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1970년대에는 경공업체에서 일하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여공'이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여공'을 사용함

5)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에서는 1981년 졸업정원제를 실시해 대학 정원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7.2%에서 1983년 38.3%까지 급증함.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대학 진학이 "보편적" 삶의 경로로 인식되고 있음(출처: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3교대 근무에 맞춰 변형된 주경야독

· 한일여고의 반은 크게 A반, B반, C반, 주전반으로 구분됨

- A, B, C반은 3교대로 돌아가는 반을 말하고, 주전반은 주간에만 일하는 주간전문반의 약자임
-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주경야독은 주전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A, B, C반의 경우 수업시간이 근무시간에 따라 매주 바뀌는 시스템이었음
- 학교 수업은 하루에 4시간씩이었는데, 4시간(5교시) 수업만으로도 당시 정해진 교육시수를 채울 수 있었던 건 산업체학교의 특성 상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 중 일부가 실습시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또한 다른 학교와 달리 방학이 없었고, 명절을 제외하고는 공장이 가동되는 것에 맞춰 학교가 계속 운영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정해진 교육시수를 채울 수 있었음

▪ 화학제품부터 완제품까지, 공정에 따라 다른 노동강도

· 한일합섬은 화학제품에서 실을 뽑아내서 옷이나 모포 등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음

- 1982년도 졸업앨범에 실린 '현장생활'에서는 'Top 제조, 전방(Rover), 전방(B/C), 정사(Winder), Auto Winder, 인사(Reeling)'의 공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화학제품으로부터 실을 제조해서 실을 잇고, 감는 공정 등이 포함됨

· 근무공정에 따라 노동강도도 많이 달랐다고 함

- 염색 공정의 경우 화학제품 냄새로 인해 힘든 점이 있었고, 실을 잇는 정방 업무의 경우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공장 안이 더워서 항상 땀에 젖은 채로 일해야 했다고 함
- 반면 똑같은 3교대라고 해도 실험실에 근무하거나, 주간에만 일하는 주전반의 경우 다른 업무보다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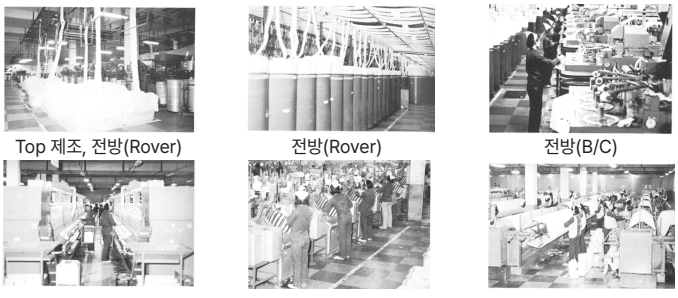


그림5 1982년 한일여고 졸업앨범에 실린 현장생활

▪ 높은 향학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

· 한일합섬으로 오게 된 가장 강력한 유인책은 고등학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음

- 한일여고에는 전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모여들었음. 향학열이 높은 학생들은 기숙사 소등 후에도 다 같이 복도로 나와 모포를 뒤집어쓰고 공부를 더 하는 경우가 많았음
-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3교대로 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고등학교에 다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임
- 공장에서의 힘든 노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바로 진학하지 못하면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 진학을 꿈꾸기도 함

▪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신식의 거대한 학교 건물과 기숙사 환경은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는 힘이 되기도 함
  - 당시로는 큰 규모의 학교 건물과 스팀이 나오는 중앙난방식 건물,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과 화장실, 공동 세탁실과 아이롱실(다림질실) 등은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
  - 또한 전교생에게 교복과 책가방이 무상 제공되고, 기숙사생에게는 한일합섬에서 생산한 모포가 제공된 것이 모두 한일합섬에 입사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인식함
  - 한일여고는 당시 "선생님 월급이 다른 학교보다 배 이상"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 교원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고 함

한일학생신조

1. 우리는 일하면서 배우는 한일의 여학생이다. 알뜰한 생활로 자랑을 가진 한국의 여성이 된다.
2. 우리는 극기와 검소와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고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나간다.
3. 우리는 서로 우애있게 지내며 예절을 지키고 항상 반성하며 시간을 선용한다.
4. 나의 봉사가 회사와 국가에 보탬됨을 알고 불황타개를 위한 전사적 운동에 앞장선다.
5. 우리는 미래의 중요한 조국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한다.

그림6 <한일합섬 사보 제33호>(1974.11.20.발행)

▪ 기숙사, 인간적 유대관계가 극대화된 공간

- 기숙사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관리되었지만, 선후배들과의 인간적 유대관계가 극대화된 공간이었음
  - 기숙사 방은 3교대 근무조에 따라 배치되었기 때문에 1, 2, 3학년이 섞여 있었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관리됨. 방장, 층장, 동장, 사감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위계관계가 있고, 점호시간에 맞춰 인원 점검을 하고, 각 잡힌 모포와 함께 정리 정돈 상태를 점검받고, 외출증과 외박증으로 생활을 규제받았음
  - 하지만 기숙사는 함께 방을 쓰는 선후배들이 모여 같이 생일파티를 하거나 휴식시간을 맞춰서 사진관에 같이 가기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도 가서 함께 여고시절의 추억을 쌓으며 우애를 다지는 "자매애(sisterhood)"가 싹트는 공간이기도 했음[6)]

▪ '공순이 학교'가 아니라 '大한일합섬' 직원

- 구술참여자들은 친구들과 교복을 입고 마산 시내에 나가면 '한일합섬 공장데기가?'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사람들이 한일여고를 '공순이 학교'로 보는 시선"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함
  - 구술참여자들은 처음 한일여고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남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보내주지 않는게 "너무 서러워서", "비극으로" 인식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大한일합섬'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와 회사를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에 기분 나빠하기도 함
- 당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여공', '공순이', '공장데기'와 같이 비하적인 언어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구술참여자들은 지금도 '여성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
  -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산업체 학교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착취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음. "공부가 하고 싶어서 제 발로 찾아왔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번 돈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평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함

6) 김원(2004)은 1970년대 '여공'의 문화에서 기숙사를 여성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지만, 기숙사는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동질감을 형성하면서 연대가 확장해 나가는 "자매애"의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함(출처: 김원, 2004, "여공의 정체성과 욕망: 1970년대 '여공 담론'의 비판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 평생 간직하고 있는 교시의 정신

- 한일여고 졸업생 중에서는 지금도 한일여고 교시를 삶의 신조로 삼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지금도 한일여고 교문에는 김한수 초대 이사장이 작성한 교시, "어떠한 시련과 곤궁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녀 이외에는 이 교문을 들어설 수 없다"는 문장이 한쪽 벽에 크게 쓰여있음
  - 1970년대에는 교문 입구에 녹색 현판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구술참여자들은 학교에 들어설 때마다 교시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으며, 지금까지도 교시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는 경우가 많았음



그림7 1974년 제작된 교시 현판

▪ 삶을 개척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난 소녀들

- 16살 어린 소녀들을 한일합섬으로 이끈 데에는 어려운 집안 살림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더 컸음
  -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멀리 경남 마산까지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소녀들은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멀리 마산까지 찾아왔음
  - 강원도 태백 또는 고성에서, 또는 충남 당진에서 온 구술참여자는 당시 마산까지 오려면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고 거의 하루가 꼬박 걸리는 대장정이었다고 함. 그래서 고향에 자주 못 가고 명절 연휴에만 갈 수 있었는데, 고향에 갈 때마다 학생을 상징하는 "교복을 입고" 갔다고 함

▪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도전들

- 3교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바쁜 일상에서도 구술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함
  - 한일여고를 졸업 후에 '피아노 치는 삶'을 꿈꾸며 피아노 학원을 다니거나, 웅변학원을 다니면서 각종 대회를 휩쓸고 다니거나, 웅변학원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공장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 연사가 되어 전국을 누비고 다닌 구술참여자도 있었음
  - 또한 한일여고 졸업 후 사무직으로 취업하길 꿈꾸며 당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전화교환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한일합섬을 벗어나기 위해 삶의 돌파구로 수녀원을 선택한 구술참여자도 있었음
- 또한 구술참여자 중에서는 학생회장이나 반장 역할을 맡아 학생들을 위해 앞에 나선 경험을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간직한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학생회장일 때 학교 앞 분식점들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분식센터를 가로막고 이용을 못하게 해서 결국 분식점 사장들의 사과를 받아내거나, 수업을 불성실하게 하는 선생님에 대해 직접 교장실에 찾아가 항의한 적도 있었음

04.남은 과제들

▪ 사라진 사람들

- 1974년에 입학한 1,680명의 학생 중 1977년에 졸업한 학생은 1,258명으로[7], 입학생 중 75%가 졸업함
  - 이 졸업생 중에서 70% 정도는 졸업과 동시에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당시 급여가 한일합섬보다 높았던 수출자유지역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함
- 한일합섬으로 인해 1970년대부터 유입된 마산 지역 여성노동자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함
  - 한일합섬이 한참 잘 나갔을 때 학생 수만 7천2백 명, 사원 수는 2만 명에 달했고, 전국 각지에서 마산으로 모여들면서 마산 인구도 급증함
  - 1980년대 한일합섬과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마산으로 유입되었지만, 그 이후 섬유산업의 쇠퇴라는 산업환경 변화와 수출자유지역 외국기업들의 자본 철수로 인해 마산 인구는 크게 감소함

▪ 비석만 남아 지키고 있는 역사의 현장

- 한때 국내 수출 1위의 대기업이었던 한일합섬은 지금 한일합섬 옛터라는 비석만 남은 채 사라짐
  - 그리고 한일합섬과 산업체 학교가 사라짐과 동시에, 그 안에서 일했던 어린 소녀들의 피, 땀, 눈물 또한 모두 과거의 일로 잊혀짐. 당시 소녀들에게 한일합섬과 한일여고가 있었던 마산은 기회의 땅이었지만, 기회의 땅으로 찾아온 소녀들을 지역에 계속 붙잡아 두지 못하고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함
  - 그리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압축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꿈꾸던 소녀들에게 당시 한일합섬에서 일하고 공부했던 경험을 말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음

▪ 그 많던 '여공'들은 어디로 갔는가?

- 그 많던 '여공'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의 중요성
  - 일하면서도 공부할 기회를 찾아 집에서 멀리 떠나온 어린 소녀들의 용기, 한 편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본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했던 여학생들의 고된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적 보상이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음
  - 더는 한일여고를 나왔다는 것을 지우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기억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함
  - 구술참여자들의 말처럼 한일합섬과 한일여고는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끄럽지도 않은" 기억이기 때문에, "한일여고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많던 '여공'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음



그림8 <한일합섬 옛터> 비석

7) <한일합섬 사보 제60호>(1977.2.20. 발행)